

수능 국·영·수 지난해보다 쉬웠다

절대평가 영어 1등급 10.03%로 변별력 크게 떨어져 표준점수 전년대비 국어 5점·수학 나형 2점 하락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2~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나오는 수준이어서 변별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영역의 경우 90점 이상인 1등급과 80점 이상인 2등급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무려 3분의 1 가량에 달해 변별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1일 정무세총장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문과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 영어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자가 받게 되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영역별로 국어는 134점, 수학 가형은 130점, 수학 나형은 135점이었으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는 5점, 수학 나형은 2점이 내려갔다. 이 과목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지난해 수준(130점)을 유지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낸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높아지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지면 낮아진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1등급 컷라인은 국어는 130점에서 128점으로 내려갔다. 수학 가형과 나형은 각각 124점에서 123점으로, 131점에서 129점으로 하락했다.

올해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영역의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비율이

10.03%(5만2983명)였다. 지난해 수능에서 90점 이상 비율이 7.8%(4만286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90점 이상인 1등급과 80점 이상인 2등급 비율이 전체 응시생의 29.68%(15만6739명)에 달했다.

시가지 평가원 기획분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점수가 내려갔다는 것은 시험이 쉬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국어는 쉬워졌고, 수학 가형과 나형은 지난해와 유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영어는 지난해 상대평가로 시행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진 한국사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2.84%였고, 전체 학생의 48.9%가 4등급 이상을 받았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격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커졌다. 만점자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 영역 중 쉬웠던 생활과학이 63점인

반면 어려웠던 세계사는 69점으로 6점 차이가 난다. 또 과학탐구 영역 중 쉬웠던 지구과학II는 66점인 반면 어려웠던 물리II는 71점으로 5점 차이가 난다. 지난해 최고점 차이가 사회탐구 최고 3점, 과학탐구 5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회탐구 과목별 난도 차이가 다소 벌어졌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9개 과목 중 영어가 응시자는 5만1882명으로 응시자 중 73.5%를 차지했다. 이과 영어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 71.1%에서 2.4% 포인트 증가했다. 이과 영어 I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90점인 반면 독일어 I과 프랑스어 I은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한다.

평가원은 12일 수험생들에게 수능 성적표를 배부한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3만327명으로 재학생은 39만8838명, 졸업생은 13만2489명이었다.



눈길을 뚫고 11일 전북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불법사찰 핵심은 정권비판 교육감 제거”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사진)은 1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지시한 교육감 불법사찰의 핵심은 정권비판 교육감 제거”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도교육청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전 정무수석 우병우가 2016년 3월 국정원에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내용과 방법이 어떻든 불법사찰을 해서 교육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불법사찰에 는 우병우, 국정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내부조직만 연결된 게 아니라 정권, 우병우, 국정원, 검찰, 감사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고 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군사정부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 나가 피해자

김승환 교육감, 철저수사 촉구 피해자 조사 참고인 출석

진술할 때 언론 보도에 나온 몇 개에만 얽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찰의 전모를 다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불법사찰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남대 폐교만큼은 막아주세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청와대에 존치 호소

서거석(사진)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폐쇄 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남원 소재) 존치를 원하는 호소문을 썼다.

11일 서남대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서거석 전 총장이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서남대 존치 호소문’을 썼다.

서 전 총장은 ‘우리 서남대 폐교만큼은 막아주세요’라는 호소문을 통해 “전북 동남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이 폐교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가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 지역의 공동체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간곡히 말했다.



또 “서남대는 전북 동남권의 발전을 선도하고 추동해 가는 중요한 거점 대학”이라며 “교육부의 시정 요구 사항 이행 여부 등의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 폐쇄만은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부산의 한 병원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상생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지역민들의 애절한 심정을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었으면 한다”며 “청와대와 해당 부처에서 남원 시민과 전북도민들의 마지막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동북아시아 경제발전’ 한·중 힘모은다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서 경영경제 국제학술대회 열려 양국 간 협력 통한 방안 모색

한·중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4차 ‘동북아 경영경제 국제학술대회’가 최근 전북대학교 상과대학(학장 최백렬)에서 열렸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각지에서 온 20여 명

의 학자들과 국내 거점국립대학 경상계열 교수들이 영문 19편, 중문 5편, 한국어 5편 등 총 29편의 논문 발표를 통해 한·중 FTA,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한국과 중국의 국가 경쟁력,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기술협력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개발과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종합백선에서 한·중 FTA에 따른 양국 간 무역이 남북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전북대 최남석 교수는 한·중 FTA에 따른 제2역의 가공지역을 북한과 중국 접경지

역에 새롭게 개설할 경우,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창출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남경 재경대 진한신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산업 수요와 공급의 매칭에 관한 연구에서 한중일 삼국의 모든 산업에서 미스매칭이 발견되어 3개국 모두 공급 측면에서의 새로운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3개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내몽고에서 온 왕메이홍 박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실현으로

동북아시아와 중국 동북지방이 중국의 공급측면 구조조정에 따른 발전의 기회와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 측은 동북아시아의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9일 학술대회에 참여한 양국 학자들을 새만금 지역으로 안내했으며, 전주·군산·부안 일대의 문화탐방도 진행했다.

한편, 동북아 경영경제 국제학술대회는 한국경영경제학회(회장 최백렬)와 중국대학상업교육학회(회장 전 중국인민대학 총장 기바오청)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2002년부터 한·중 양국을 오가며 열려 왔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